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 방식에 관한 연구*

강다혜(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박사 수료)**

여운승(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부교수)***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리믹스 음악의 발달사
 - 2.2. 돌레젤의 원작 변형 원리
3.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 요소 분석
 - 3.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3.2. 분석 결과
4.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
 - 4.1. 확장을 통한 리믹스
 - 4.2. 치환을 통한 리믹스
5. 결론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리믹스' 행위는 오늘날 문화 콘텐츠 제작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ITP-2022-2020-0-01460 / 시물레이션기반융복합콘텐츠 연구센터)

제1저자 * 교신저자

이러한 리믹스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고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정작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이러한 원작 재구성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대중음악 리믹스 94곡을 선정하여 그 음악적 요소를 원곡과 비교하고, 리믹스 음악 창작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표적 유형을 파악했으며, 명확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문학 분야의 이론가 돌레젤이 제시한 온 원작 변형의 원리를 차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은 1) 원곡의 반주(배경)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컬 구성을 변형하는 '확장'과 2) 원곡의 보컬(등장인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반주를 새롭게 변형하는 '치환'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파악된 리믹스 음악 창작의 핵심은 원곡의 보컬과 반주 중 하나를 그대로 보존하는 동시에 다른 요소를 완전히 변형하는 것이며, 그 결과 원곡이 지닌 아우라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형된 요소를 통해 원곡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음악이 아닌 분야에서 제시된 원작 변형 원리를 바탕으로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작품의 분석은 물론 신규 작품 창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리믹스 음악, 리믹스 문화, 루보미르 돌레젤, 원작 변형 원리, 확장, 치환

1. 서론

리믹스(remix)는 일반적으로 창작 과정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Gunkel, David,

2018:17) ‘기존의 문화적 재료를 재구성한다’라는 리믹스의 기본 개념은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최근의 문화적 흐름 파악에 중요한 하나의 창작 방식으로, 오늘날 문학, 영화, 미술,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 양식에 활용되고 있다.(Knobel, Michele, 2010)

뒤상(Marcel Duchamp)의 「샘」을 청동으로 복제하여 만든 레빈(Sherrie Levin)의 「샘 : 마르셀 뒤상 이후」, 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B급 좀비 영화로 재구성한 스미스(Seth Smith)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오바마(Barack Obama)의 사진을 재구성하여 선거용 포스터로 만든 페어리(Shepard Fairey)의 「희망」, 최근 인스타그램(Instagram) 릴스(Reels)에 신설된 기능인 「리믹스」에 이르기까지 리믹스라는 개념은 현재 문화적 활동과 콘텐츠 창작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재조합과 재구성의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깁슨은 “리믹스는 디지털 자체의 본질이며 21세기를 특징짓는 특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Gibson, William, 2005: 118)

반면, 최초의 리믹스는 1960년대 대중음악 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 그후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악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본래 리믹스라는 용어 자체가 오디오의 녹음 및 편집 관련 기법을 서술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각 악기의 음향적 요소들을 조정하여 하나의 신호로 결합하는 음악적 행위인 믹스(mix)라는 용어에 접두어 ‘re’를 붙여, 분리된 연주 트랙이나 보컬 트랙을 재조정하는 레코딩의 새로운 버전을 뜻하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Gunkel, David, 2018: 63-67) 리믹스는 그 탄생의 첫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메이카(Jamaica) 출신의 디제이(DJ) 중 다수가 1980년대에 미국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미

국 전역의 라이브 클럽에 전파됨으로써 대중화를 이루었으며, 그에 힘입어 1990년대 음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확장되어 21세기의 특징적인 문화적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Navas, Eduardo,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리믹스 음악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전반적인 리믹스 문화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연구된 경우가 많다. 퍼거슨(Ferguson, Kirby, 2010)¹⁾, 나바스(Navas, Eduardo, 2012) 및 깁슨(Gibson, William, 2005) 등은 리믹스 음악의 발달사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디어의 발달과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고 21세기의 창작이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의 재구성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 외 게일러(Gaylor, Brett, 2008)²⁾, 이블(Eble, Kerri, 2013), 고르다(Gorda, AAANSR, 2022) 등은 기존의 음악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들 또는 그 리믹스 음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 시대 문화 창작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즉,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리믹스 음악은 주로 그 역사와 사례를 통해 리믹스로 대표되고 있는 콘텐츠 창작 방식의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곡을 변형하여 재구성되는 리믹스 방식 자체에 대한 연구 사례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리믹스의 문화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음악 분야의 리믹스 방식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분야로 확산된

1) 다큐멘터리 "Everything is Remix"

2) 다큐멘터리 "Rip! A Remix Manifesto"

‘원작 재구성 방식’의 구체적인 전략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리믹스 음악이 원곡을 어떻게 변형하여 재구성하는지 원곡과의 비교에 중점을 둔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원곡 변형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리믹스 창작 방식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텐츠 창작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만큼, 이미 원작 재구성의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문학 영역과도 그 변형 방식의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문학 이론가 돌레젤(Dolezel, Lubomir, 1998)이 제시한 원작 변형 원리를 음악 영역에도 대입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리믹스 음악의 발달사

리믹스 음악은 ‘원곡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 대체, 혼합하여 재생산한 2차적 음악 창작물’로 정의되며,(Knobel, Michele & Colin, Lanshear, 2008: 22-23) 1960년대 후반 자메이카(Jamaica)에서 디제이들이 원곡에서 보컬과 연주 편성을 빼거나 재구성함으로써 노래의 특정 부분을 확장하여 변화를 주는 것으로부터 맨 처음 시도되었다. 버저닝(versioning)이라고도 불리던 그러한 행위는 1970년대 레게(reggae) 음반 발매 시 디스크의 앞면(A-side)에는 원곡을 수록하고 뒷면(B-side)에는 원곡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된

리믹스 버전을 수록하는 관습으로 자리잡았다.(정성한, 2017: 18-19)

그 후 1980년대에 리믹스는 뉴욕과 시카고 등지로 이주한 자메이카 출신 DJ들이 디스코 또는 힙합 등의 장르를 통하여 자메이카의 리믹스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대중화되었다. 특히 댄스 클럽에서 인기곡들을 재작업하고 확장시켜 사용하였으며, 댄서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타악기 소리인 브레이크 비트를 분리해내고 이 조각들을 하나의 긴 음악으로 묶어내는 작업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리믹스라는 용어 자체가 유명하지는 않았던 이전 세대에 비하여 그 용어와 개념이 확실히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리믹스는 하나의 음악 스타일로 자리매김 하였고, 미국 음반 시장 내에서 음반 판매를 증가시키는 역할로 상품화 되었다. 많은 리믹스 앨범들이 제작되고 상업적으로 유통됨과 동시에,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음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이러한 작품들이 공유되었으며 일부 대중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창작이 시도됨으로써 민중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하였다.(Gunkel, David, 2018: 63-65)

1990년대에 이르러 리믹스는 음악 분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문화의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결국 현재에 이르러 리믹스의 개념은 콘텐츠 창작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리믹스 음악 또한 다른 영역의 콘텐츠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들의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과 같은 플랫폼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영상 분야와 결합되어 창작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대중이 리믹스 음악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리믹스 음악은 이러한 민중 예술로서의 특징을 유지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화성법이나

대위법 등의 음악적 규칙을 학습한 음악가만 음악을 창작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를 지나 디지털 기술로 음악적 재료를 다룰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일반 대중에게 기존에 발표된 음원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적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던 리믹스 음악은 이전 시대의 음악 전문가가 학습해왔던 전통적인 음악적 규칙을 넘어 현 시대 음악 창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음악적 규칙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2. 돌레젤의 원작 변형 원리

문학 이론가 돌레젤은 이야기 창작을 허구 만들기(fiction making)로 칭하고 그렇게 창조된 허구의 세계를 원형 세계(proto world)로, 원형 세계를 재구성하여 만든 또 다른 세계를 계승 세계(success world)로 설명하며, 원형 세계를 계승 세계로 연결하는 방식을 확장(expansion)·치환(transposition)·대체(displacement)의 세 가지 원리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Dolezel, Lubomir, 1998)

앞서 설명했듯이 리믹스의 개념이 음악 분야에서 처음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의 예술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분야에서는 그 원작 변형 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 역으로 음악으로부터 리믹스 개념을 흡수한 다른 예술 분야에서 논의된 원작 변형 방식의 이론을 되짚어가는 것 또한 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중 문학 분야와 음악 분야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전개하는 ‘시간 예술’이라는 근본적인 특징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화나 사진 등 시각적인 특성을 갖는 ‘공간

예술'에서 나타나는 원작 변형 방식과 차별화되는 그 특징은 음악 분야에 대입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문학 분야에서 기존에 논의된 이론 중 원형 세계를 변형하여 생성하는 계승세계의 원리가 원곡을 변형하여 창작되는 리믹스 음악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상당 부분 그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돌레젤이 제시한 다음의 세 가지의 원작 변형 원리(Dolezel, Lubomir, 1998: 206-7)를 살펴보고자 한다.

‘확장’은 원형세계의 확립된 설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여 그 세계를 연장하는 것으로, 원작의 스토리에 더 많은 등장인물을 추가하거나, 원작의 조연을 주연으로 전환하거나, 프리퀄(prequel)이나 시퀀(sequel)을 통해 원작이 다루는 구조적인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치환’은 원형 세계의 주요 스토리(main story)를 유지하지만 그것을 다른 배경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원작의 등장인물이 원작과는 상이한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에 놓여질 때 생성되는 새로운 조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대체’는 원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작의 등장인물이 원작에서와는 병치되는 운명을 맞닥뜨리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야기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스토리를 재발명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매된 리믹스 음악의 원곡 재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돌레젤이 제시한 위와 같은 원작 변형 원리를 음악 영역에도 대입하여 리믹스 음악의 유형 도출을 위한 틀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3. 원곡 변형 요소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목적에 따른 리믹스 음악의 분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나바스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를 따른다. 나바스는 음악이 재생되는 특정 상황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의 리믹스 음악과, 원작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재료로 사용하되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기 위한 목적의 리믹스 음악으로 분류하였다.(Navas, Eduardo, 2012: 65-6)

전자는 원곡을 새로운 음악으로 변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음악과 연이어 믹스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앞 뒤 길이를 길게 수정하거나, 라디오 매체에서 재생하기에 적합한 길이로 편집하거나, 클럽에서 퍼포먼스하기에 용이하도록 변형하는 것으로, 각각 익스텐디드 믹스(extended mix), 라디오 믹스(radio mix), 클럽 믹스(club mix)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Borschke, Margie, 2012:119) 후자는 원작자와 상이한 아티스트가 원곡 작품의 일부를 차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음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그러한 아티스트의 이름을 붙인 리믹스(artist remix) 또는 덤믹스(dub mix) 등으로 일컬어지며, 나바스는 이러한 리믹스 음악을 ‘선택적 리믹스(selective remix)’라고 명명하며 전자와 구분하기도 하였다.(Navas, Eduardo, 2012: 65-6)

이에 본 논문은 분석 대상의 선정에 있어, 전자인 특정 상황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의 리믹스 음악은 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인 원작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리믹스 음악이 원작 변형 방식의 도출을 위한 분석

의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리믹스 음악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아티스트 및 저작권 관점에서 공인되지 않은 리믹스들을 ‘부틀렉(bootleg)’이라고 명명하여 공식적인 리믹스 음악과 구분해 온 만큼,(Gunkel, David, 2018: 54) 사운드클라우드(sound cloud), 유튜브 등의 SNS에 개인이 창작하여 올려놓은 비공식적 리믹스는 완성도 측면에서 특정 작품들에 대표성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여 공인된 리믹스와 같은 층위에 두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제외하고, 원작자의 승인을 받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음원 유통 플랫폼에 발매된 리믹스 음악으로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원작을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기 위한 목적의 리믹스 음악, ②원작자의 승인을 받고 정식 절차를 통해 발매된 리믹스 음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원을 취합하기 위해 연구 기간³⁾ 동안 음원 유통 플랫폼⁴⁾에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창작성을 가미한 리믹스 음악 중 사용자 선호도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위 100곡을 선별하고, 그 중 민요 또는 캐럴(carol) 등 원곡이 특정되지 않아 변형 요소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곡을 제외한 총 94곡을 최종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 3) 2020년도 3-4분기. 발매의 시기와는 상관없이 연구가 진행되던 기간(2020년 3-4분기)과 일치하는 시기에 정식적인 승인 절차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모든 리믹스 작품 중 대표성을 띠는(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리믹스 음악 창작의 원곡 변형 방식을 도출하였기에, 분석의 결과는 특정 창작 시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볼 수 없음.
 - 4) 국내/외 음원을 모두 유통하는 플랫폼 중, 음원 유통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M사의 멜론(Melon)을 채택함.

위와 같이 선정된 리믹스 음악과 그에 대한 원곡을 구성하는 음악적 요소들을 각각 상호 비교한 후, 원곡에 비해 리믹스 음악에서 변형된 요소들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원곡 변형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비교할 요소는 창작자가 음악 창작의 설계 단계에서 설정하는 음악적 요소 중 필요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적인 요소를 제외한 필수적인 요건들로만 선정하였다.

해당 비교 요소는 ①템포(tempo), ②조성, ③악곡 구조, ④보컬 구성, ⑤악기 구성의 총 5가지 항목으로, 템포는 1분당 연주되는 4분 음표의 수를 뜻하는 BPM(beat per minute)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변형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조성은 각 곡의 멜로디 및 코드(chord) 진행 등에서 나타나는 음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변형 여부를 파악하였다. 악곡 구조는 대중음악 형식 분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악곡 구성 요소인 인트로(intro), 벌스(verse), 코러스(chorus), 간주(interlude), 브릿지(bridge), 아웃트로(outro)를 기준으로 하되, (양지, 2017: 61) 주요 악구들의 변형을 보다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벌스는 ‘벌스 a,b,c,d...’로, 코러스는 ‘코러스 1,2,3,4...’로 그 기준을 세밀화 하였으며, (황소라, 2019: 77-82) 그렇게 도출된 각 악구의 순서와 마디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변형 여부를 파악하였다. 보컬 구성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악기 구성은 반주 악기의 종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변형 여부를 파악하였다.

3-2. 분석 결과

위와 같은 총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원곡에 비해 리믹스 음악에서 변형된 요소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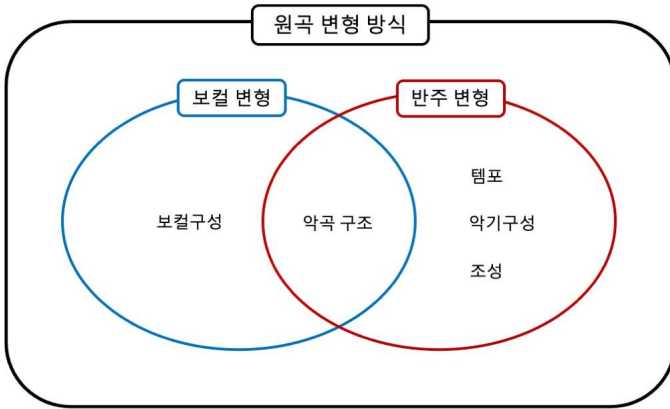
첫째, 총 94곡의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은 반주(instrumental)를

보존하고 보컬(a capella)을 변형한 방식(45곡)과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한 방식(49곡)의 두 가지로 뚜렷하게 분류된다. 분석의 기준이 되었던 5가지의 음악적 요소의 변형 여부 분석 결과, 악기 구성이 변형된 경우 보컬 구성은 전혀 변형되지 않았고 보컬 구성이 변형된 경우 악기 구성은 전혀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기 구성의 변형과 보컬 구성의 변형은 서로 배타적인 설정이었다. 또한, 악기 구성이 변형된 경우 템포와 조성이 곡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형되었지만 보컬 구성이 변형된 경우는 템포와 조성이 단 한 곡도 변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통하여, 대중음악의 일반적인 창작 과정이 아무런 음악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템포나 조성과 같은 총괄적인 요소들을 먼저 설정하고 그를 전제로 악기 구성이나 보컬 구성 등의 세부적인 요소를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리믹스 음악의 창작은 이미 주어진 원곡의 재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인 만큼 원곡의 악기 구성, 즉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할 것인가 아니면 원곡의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할 것인가의 두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창작의 핵심이며 그 선택으로부터 세부적인 원곡 변형 방식도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컬 구성과 악기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템포, 조성, 악곡구조의 요소들은 그것이 주로 반주 창작에 연관되는 요소인지 보컬 창작에 연관되는 요소인지에 따라 변형 여지가 결정된 것인데, 템포와 조성은 일반적으로 반주를 창작할 때 설정하는 요소임으로 원곡의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한 유형에서는 전혀 변형되지 않았고, 악곡 구조는 보컬과 반주 창작에 모두 관여하는 요소임으로 두 유형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형되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도출된 첫 번째 특징에 따라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 방식 두 가지에 각각 관여하는 음악 변형 요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리믹스 음악의 원곡 변형 방식과
그에 관여하는 음악 변형 요소



둘째,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한 리믹스 음악은 45곡 모두 새로운 보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곡을 재구성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보컬 구성을 변형하는 세부적인 방식을 분석 대상에서 나타난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① 원곡의 보컬에 다수의 새로운 보컬을 추가하는 방식(16곡), ② 원곡의 보컬을 조연화하고 추가된 보컬을 주연화 하는 방식(15곡), ③ 원곡의 보컬에 한 명의 새로운 보컬을 추가하는 방식(14곡) 순이며, 이때 새롭게 추가되는 보컬에 의해 원곡에는 존재하지 않는 멜로디가 창작되었다. 악곡 구조는 곡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형되었는데, 추가되는 보컬의 분량만큼 필요한 반주를 기존의 보컬 분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확보한 곡 14곡을 제외한 나머지 31곡은 기존의 반주 중 벌스의 세부 악구 a, b에 b를 한 번 더 반복하거나, 기존의 벌스 a, b를 단순 편집한 c, d를 생성하여 덧

붙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악곡 구조 변형은 단순히 보컬의 반주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소극적인 변형으로, 보존된 반주를 원곡 그대로 인식 가능하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중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한 리믹스 음악을 세부 변형 방식에 따라 분류한 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1>과 같다.

<표-1>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한 리믹스 음악 예시

변형 방식	가수명	원곡 음원 제목	리믹스 음원 제목
다수의 보컬을 추가	24K Goldn	Mood (feat. Iann Dior)	Mood Remix (feat. Iann Dior, Justin Bieber, J Balvin)
	Jack Harlow	WHATS POPPIN	WHATS POPPIN Remix (feat. DaBaby, Tory Lanez & Lil Wayne)
	Jawsh 685	Savage Love	Savage Love BTS Remix (Laxed - Siren Beat)
	ASH ISLAND	Paranoid	Paranoid Remix (feat. CHANGMO & Paul Blanco)
	Kid Milli	BOY	BOY Remix (feat. Tommy Strate, 저스디스, 릴타치, 스윙스)
	김효은	그걸로 좋아	그걸로 좋아 Remix (feat. ASH ISLAND, 창모)
	The Quiett	Prime Time	Prime Time Remix (feat. CHANGMO, Hash Swan & Dok2)
	창모	Swoosh	Swoosh Flow Remix (feat. 365lit, ZENE THE ZILLA, Chamane, Paul Blanco, Damndef, & Northfacegawd)
	박재범	몸매 (feat. Ugly Duck)	몸매 Remix (feat. Crush, Simon Dominic & Honey Cocaine)
	스윙스	Rain Showers	Rain Showers Remix (feat. 기리보이, 천재노창, 씨잼)
먼치맨	딱딱해	딱딱해 Remix (feat. Don Mills, Tommy Strate, B-Free)	

	박재범	SOJU (feat. 2 Chainz)	SOJU Remix (feat. 사이먼 도미닉, 창모, Woodie Gochild)	
	Yuzion	Look At Me!!	Look At Me!! Remix (feat. Flavordash, Changmo)	
	한요한	TO ALL THE FAKE RAPSTARS	TO ALL THE FAKE RAPSTARS Remix (feat. NO_EL, JUSTHIS, 영비, Kid Milli)	
	조광일	곡예사	곡예사 Remix (feat. Basic, P-TYPE, Skull, SIKBOY, Oltii, MINOS, Brown Tigger, JAZZMAL)	
	첸슬러	AUTOMATIC	AUTOMATIC REMIX (feat. 첸슬러, 박재범, 비비, 제이미, MOON, SURAN, HOODY, SUMIN, 범키, 서사무 엘, 베이빌론, MARSHALL, ANN ONE, ELO, 트웰브, SOLE, THAMA, 지젤, K, VSH, JINBO, 저드, 수비, B.E.D, XYDO, OWELL, NONE)	
추가한 보컬을 주연화	가수명	원곡 음원 제목	리믹스 가수명	리믹스 음원 제목
	버벌진트	시발점 (feat. Beenzino)	BIG Naughty	시발점 Remix (feat. 버벌진트, Beenzino)
	사이먼 도미닉	니가 알던 내가 아냐	박재범	니가 알던 내가 아냐 Remix (feat. 로꼬, 사이먼 도미닉)
	한요한	범퍼카 (feat. Young B, NOEL)	가리보이	범퍼카 Remix (feat. 마미손, 김승민, 한요한)
	pH-1	주황색 (feat.박재범)	The Quiett	주황색 Remix (feat. pH-1 & Kid Milli)
	박재범	Solo (feat. Hoody)	예지	Solo Remix (feat. 박재범, 로꼬)
	자메즈	거북선 (feat. 팔로알토)	팔로알토	거북선 Remix (feat. G2, B-Free, Okasian & ZICO)
	자메즈	Birthday (feat. 박재범, 도끼)	박재범	Birthday Remix (feat. Ugly Duck, Woodie gochild, Hoody)
	소금	사랑해줘	엄파	사랑해줘 소금 Remix (feat. 소금)

	슈퍼비	Beverly 1lls	Dok2	Beverly 1lls Remix (feat. The Quiett)
	비	깡	식케이	깡 Official Remix (feat. 박재범, Ph-1, HAON)
	윤비	트루먼 쇼	pH-1	트루먼 쇼 Remix (feat. 안병웅, Owen Ovadoz)
	저스디스	IndiGO	가리보이	IndiGO Remix (feat. 더콰이엇, 마미손, 스윙스)
	이로한	북	오담 (김농필)	북 Remix (feat. 슈퍼비, 던밀스, 우디고차일드)
	도끼	RAP STAR	플로우식	RAP STAR Remix
	나플라	119 (Feat. GRAY)	Various Artist	119 REMIX (feat. 박재범, 쌤디, 로꼬, 어글리덕, 우원재, 식케이, 우디고차일드, 김하은, 개코, 비와이, 팔로알토, 지투, 레디, 스웨یدی, 오원오바도즈, 더콰이엇, 창모 외 34명)
1명의 보컬을 추가	Lil Nas X	Old Town Road		Old Town Road Seoul Town Road Remix (feat. RM)
	Lizzo	Good As Hell		Good As Hell Remix (feat. Ariana Grande)
	Maluma	Hawai		Hawai Remix (feat. The Weeknd)
	Luis Fons	Despacito		Despacito Remix (feat. Justin Bieber)
	Lauv	Sims		Sims (Miquela Remix) (feat. Miquela)
	Taylor Swift	Lover		Lover Remix (feat. Shawn Mendes)
	Sam Fische	This City		This City Remix (feat. Anne Marie)
	레디	I Was a Boom Bap Kid		I Was a Boom Bap Kid Remix (feat. YDG)
	Arizona Zervas	ROXANNE		ROXANNE Remix (feat. Swae Lee)

	Future	Mask Off	Mask Off Remix (feat. Kendrick Lamar)
	Bruno Mars	Finesse	Finesse Remix (feat. Cardi B)
	사이먼 도미닉	Lonely Night	Lonely Night Remix (feat. ELO)
	지바노프	종이인형	종이인형 Remix (feat. CHANGMO)
	그레이	Summer Night	Summer Night Remix (feat. Hoody)

셋째,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한 리믹스 음악은 49곡 모두 악기 구성, 악곡 구조, 템포, 조성 네 가지 음악 요소의 선택적 변형을 통해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반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원곡을 재구성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악기 구성은 변형의 필수적 요소였으며, 이 외 나머지 음악적 요소들의 변형은 선택적으로 추가되었는데, 그때 선택된 요소의 비율은 악곡 구조, 템포, 조성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주를 변형하는 세부적인 방식을 분석 대상에서 나타난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① 원곡의 악기 구성, 악곡 구조, 템포를 변형하는 방식(15곡), ② 원곡의 악기 구성, 악곡 구조를 변형하는 방식(13곡), ③ 원곡의 악기 구성, 악곡 구조, 템포, 조성을 모두 변형하는 방식(13곡), ④ 원곡의 악기 구성, 악곡 구조, 조성을 변형하는 방식(4곡), ⑤ 원곡의 악기 구성만 변형하는 방식(4곡) 순으로 나타났다. 악곡 구조의 변형은 악기 구성만 변형하여 반주를 재구성한 4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곡에 모두 추가적으로 변형된 요소였는데, 이때의 악곡 구조 변형은 원곡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원곡 반주의 악곡 구조의 순서 및 세부 악구를 재배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형이라 할 수 있다. 템포를 변형한 경우 원곡보다 빠

큰 템포로 변형된 곡의 비율이 79%였는데 이는 보존된 보컬의 템포를 변형된 반주의 템포와 일치시킬 때에 느리게 변환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변환하는 것이 보컬 레코딩 파일의 손상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그 이유로 해석 될 수 있다. 조성을 변형한 경우 원곡의 조성과의 나란한조(relative key)로 변형된 곡의 비율이 84%였는데 이는 보존된 보컬의 멜로디와 불협화음 없이 잘 융화되기 위해서는 원곡과 똑같은 구성음을 지니는 나란한조가 유리하다는 사실이 그 이유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한 리믹스 음악에서 템포와 조성의 변형은 보존된 보컬을 원곡 그대로 인식 가능하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중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한 리믹스 음악을 세부 변형 방식에 따라 분류한 뒤,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2>와 같다.

<표-2>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한 리믹스 음악

변형 방식	가수명	원곡 음원 제목	리믹스 음원 제목
악기 구성 · 악곡 구조 · 템포를 변형	Tony Igy	Astronomia	Astronomia (Santti, Dan K Remix)
	Alan Walker	On My Way (Da Tweekaz Remix)	On My Way (Da Tweekaz Remix)
	BTS	Dynamite	Dynamite (Bedroom Remix)
	RAC	Cheap Sunglasses (feat. Matthew Koma)	Cheap Sunglasses (feat. Matthew Koma) (Cherry Cherry Boom Boom Remix)
	SAINt JHN	Roses	Roses (Imanbek Remix)
	Maggie Lindemann	Pretty Girl	Pretty Girl (Cheat Codes X Cade Remix)
	The Chainsmokers & Coldplay	Something Just Like This	Something Just Like This (Alesso Remix)
	Coldplay	Hymn For The Weekend	Hymn For The Weekend (Seeb Remix)

	Ed Sheeran	South of the Border (feat. Camila Cabello & Cardi B)	South of the Border (feat. Camila Cabello & Cardi B) (Sam Feldt Remix)
	Tate McRae	you broke me first	You broke me first (Luca Schreiner Remix)
	Maisie Peters	Maybe Don't (feat. JP Saxe)	Maybe Don't (feat. JP Saxe) (HONNE Remix)
	Maroon 5	Moves Like Jagger (feat. Christina Aguilera)	Moves Like Jagger (feat. Christina Aguilera) (Michael Carrera Darkroom Remix)
	JP Saxe	If The World Was Ending (feat. Julia Michaels)	If The World Was Ending (feat Julia Michaels) (Marian Hill Remix)
	BLACK PINK	뚜두뚜두	뚜두뚜두 (Remix)
	Ed Sheeran	Shape Of You	Shape Of You (Major Lazer Remix)
악기 구성 · 악곡 구조를 변형	Billie Eilish	Ocean Eyes	Ocean Eyes (Astronomy Remix)
	Imagine Dragons	Believer	Believer (Kaskade Remix)
	Alan Walker	Faded	Faded (Luke Christopher Remix)
	Boom Face	BOOM SHAKA LAKA	BOOM SHAKA LAKA (DJ Mauro Vay & Luke GF Remix)
	Sia	Move Your Body	Move Your Body (Alan Walker Remix)
	Phillip Gelbach	Dance Monkey (feat. Jungle Diva)	Dance Monkey (feat. Jungle Diva) (Vibe Remix)
	손	Way Back Home	Way Back Home (Advanced Remix)
	BTS	MIC Drop	MIC Drop (Steve Aoki Remix)
	BTS	Dynamite	Dynamite (Midnight Remix)
	Dua Lipa	Don't Start Now	Don't Start Now (Dom Dolla Remix)
	Millic	Belief	Belief (Remix)
	BTS	Dynamite	Dynamite (Retro Remix)
	ITZY	달라달라	달라달라 (DallasK Remix)

악기 구성 · 악곡 구조 · 조성 · 템포를 모두 변형	Alina Baraz	Floating (feat. Khalid)	Floating (feat. Khalid) (Filous Remix)
	Anne-Marie	To Be Young (feat. DojaCat)	To Be Young (feat. Doja Cat) (Felix Cartal Remix)
	Black Coast	Trndsttr	Trndsttr (Lucian Remix)
	SZA	The Weekend	The Weekend (Funk Wav Remix)
	Surf Mesa	ily (feat. Emilee)	ily (feat. Emilee) (ARTY Remix)
	Surf Mesa	ily (feat. Emilee)	ily (feat. Emilee) (Topic Remix)
	Anne-Marie	Birthday	Birthday (Don Diablo Remix)
	Against The Current	Legends Never Die	Legends Never Die (Alan Walker Remix)
	Mike Posner	I Took A Pill In Ibiza	I Took A Pill In Ibiza (Seeb Remix)
	Beyonce	Crazy In Love	Crazy In Love (Remix)
	Beyonce	Love On Top	Love On Top (DJ Escape & Tony Coluccio Remix)
	Anne-Marie	2002	2002 (Jay Pryor Remix)
악기 구성 · 악곡 구조 · 조성을 변형	BTS	Dynamite	Dynamite (Slow Jam Remix)
	Liam Payne	Strip That Down (feat. Quavo)	Strip That Down (feat. Quavo) (Nevada Remix)
	BTS	Dynamite	Dynamite (Tropical Remix)
	MAX	Blueberry Eyes (feat. SUGA of BTS)	Blueberry Eyes (feat. SUGA of BTS) (Steve Aoki Remix)
악기 구성만 변형	Mae Muller	Anticlimax	Anticlimax (Acoustic)
	Hearts & Colors	LA On A Saturday Night	LA On A Saturday Night (Acoustic)
	Black Pink	휘파람 (Acoustic Ver.)	휘파람 (Acoustic Ver.)
	BTS	Dynamite	Dynamite (Acoustic Remix)

4.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

3장에서 기존에 발매된 리믹스 음악과 원곡에 대한 음악 요소의

비교를 통하여 리믹스 음악 창작의 핵심은 보컬 또는 반주의 보존 및 변형에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나누어진 두 유형에 각기 적용되는 일반화된 세부 변형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중음악에서 보컬 트랙은 가수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반주 트랙은 악기의 연주를 통하여 각각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중 보컬은 ‘가사’라는 언어적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주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요 스토리(main story)를 전달하는 인물의 역할에 해당되고, 이에 비해 악기는 화성, 리듬, 사운드 등의 비교적 추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요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배경을 전달하는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리믹스 음악의 창작 방식을 해석하자면 결국 원작의 배경을 보존하고 인물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변형할 것인지, 원작의 인물을 보존하고 배경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변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장에서 설명한 돌레젤이 제시한 계승 세계 생성 원리 세 가지 중 원형 세계에 확립된 설정을 유지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는 ‘확장’과 원형 세계의 주요 스토리는 유지하며 새로운 배경을 부여하는 ‘치환’에 각각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돌레젤의 이론을 기반으로 원작 변형 방식에 따른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을 도출하려 한다.

4-1. 확장을 통한 리믹스

‘확장’은 원형 세계에 확립된 설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하여 원작이 다루는 세계를 연장하는 원리의 원작 변형 방식이다. 원곡의 반주를 보존하고 보컬을 변형하는 리믹스 음악은 원곡의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등장인물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추가로 전달하는 ‘확장’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확장을 통한 리믹스 음악 중 원곡과 동일한 악기 구성 위에 한명 또는 다수의 새로운 보컬이 추가된 경우는 돌레젤이 제시한 확장의 세 가지 세부 방식 중 ①원작의 스토리에 더 많은 등장인물들을 추가하는 방식과 일치하며, 원곡의 보컬을 피쳐링(featureing)의 역할로 바꾸거나 삭제한 뒤 새로운 보컬을 메인 보컬로 대체한 경우는 ②원작의 조연을 주연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또한 확장을 통한 리믹스 음악의 대부분(88%)은 힙합 음악 장르로 구현되었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힙합 음악이 보컬 스스로 작사한 이야기로 기승전결을 전달하는 ‘인물 중심’의 장르이며, 다른 등장인물들을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피쳐링(featureing)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확장을 통한 리믹스 음악이 등장인물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곡 제목의 표기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중 〈사이먼도미닉 - Lonely Night〉을 리믹스한 〈사이먼도미닉 - Lonely Night Remix (feat.ELO)〉과 같이 확장을 통한 리믹스 음악의 제목은 원곡과 동일한 제목 뒤에 바로 ‘Remix’를 덧붙여 리믹스 음악이라는 것을 나타낸 후 그 뒤에 이어 추가된 보컬의 이름을 피쳐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변형하는데, 이러한 제목의 표기를 통해 해당 리믹스 음악이 원곡과 구별되는 핵심이 이야기를 추가로 전달하는 가수, 즉 등장인물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4-2. 치환을 통한 리믹스

‘치환’은 원형 세계의 주요 스토리를 유지하지만 그것을 다른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에 위치시키는 원리의 원작 변형 방식이다. 보컬을 보존하고 반주를 변형하는 리믹스 음악은 원곡의 보컬이 원작과는 다른 조성, 템포, 악기 구성 등으로 이루어진 상이한 배경에 놓여질 때 생성되는 새로운 조화를 이끌어내는 ‘치환’의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치환을 통한 리믹스 음악은 대부분(91%) 일렉트로닉 장르로 구현되었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일렉트로닉 음악이 대부분 반주의 흐름을 통해 주제의 기승전결을 전달하는 ‘배경 중심’의 장르이며, 다른 프로듀서에게 그 배경의 재구성을 허락하는 리믹스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환을 통한 리믹스 음악이 배경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곡 제목의 표기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중 〈Sia - Move Your Body〉를 리믹스한 〈Sia - Move Your Body (Alan Walker Remix)〉와 같이 악기 구성의 변형에 중점을 둔 리믹스 음악의 제목은 원곡과 동일한 제목 뒤에 반주를 재구성한 프로듀서 이름을 추가적으로 표기한 뒤 그 뒤에 ‘Remix’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목을 변형하는데, 이러한 제목의 표기를 통해 해당 리믹스 음악이 원곡과 구별되는 핵심이 반주 즉, 배경을 만든 프로듀서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처럼 리믹스 음악의 창작 방식은 각각 ‘등장인물’과 ‘배경’의 변형에 중점을 둔 ‘확장’ 및 ‘치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도출된 두 가지 창작 유형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에 따른 특징

리믹스 음악 창작 유형	확장을 통한 리믹스	치환을 통한 리믹스
변형 핵심	등장인물(보컬) 변형	배경(반주) 변형
변형 장르	대부분 Hiphop	대부분 Electronic Music
제목 표기 방식	보컬을 추가로 표기 (feat. ***)	프로듀서를 추가로 표기 (*** remix)
보컬 구성 변형 여부	O	X
악기 구성 변형 여부	X	O
템포 변형 여부	X	O (선택적) 대부분 원곡보다 빠른 템포
조성 변형 여부	X	O (선택적) 대부분 원곡과 나란한 조
악곡 구조 변형 여부	O (선택적) 소극적 변형	O (선택적) 적극적 변형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리믹스 음악 94곡의 원곡 변형 요소 분석 결과 및 돌레젤이 제시하였던 원작 변형 원리를 바탕으로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리믹스 음악 창작의 핵심은 원곡을 구성하는 다양한 음악 요소를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는 보컬과 배경의 역할을 하는 반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 한 영역은 보존하여 원곡의 정체성을 일부 그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되 나머지 한 영역은 완전히 변형함으로써, 원곡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곡 변형 방식을 기준으로 도출된 창작 유형은 총 두 가지로, 새로운 보컬을 추가함으로써 보컬 구성을 변형하고 원곡의 반주는 보존하는 방식의 ‘확장’의 유형, 또는 악기 구성, 악곡 구조, 템포, 조성의 변형을 통해 반주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원곡의 보컬은 보존하는 방식의 ‘치환’의 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변형을 수행하는 창작자에게는 원곡과의 비교를 통해 오히려 본인의 음악적 독창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하고, 청취자에게는 변형된 음악의 맥락 안에서 원곡의 익숙한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즐거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리믹스 음악에서만 활용되는 독특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음악 제작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악적 재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에 발표된 음원을 그 재료로 활용하는 리믹스는 그 접근의 용이함 덕분에 매우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오희숙, 2021: 246-250) 이것은 현 시대의 음악 창작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닌,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설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창작의 개념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리믹스 음악의 창작 유형 도출을 통하여 리믹스 음악 창작의 규칙으로 삼을 만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연구의 결과가 창조성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의되는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창작의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데이비드 건켈, 문순표 역, 2018. 『리믹솔리지에 대하여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유와 미학』, 포스트카드.
- 오희숙, 2021. 『음악이 멈춘 순간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 21세기 북스.
- Dolezel, Lubomir. 1998. “Heterocosmica : Fiction and possible world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nobel, Michele & Lankshear, Colin. 2010. “Music remix in the classroom”, *DIY media: Creating, sharing and learning with new technologies*, Peter Lang.
- McLeod, Kembrew & DiCola, Peter. 2011. *Creative License : The Law and Culture of Digital Sampling*. Duke University Press.
- Navas, Eduardo. 2012. *Remix Theory : The Aesthetics of Sampling*, Birkhauser.

2. 학술지 논문

- 황소라, 2019. 「협동적결과물로서의 K-pop 구조 분석」. 『대중음악』 23, 65-94.
- Eble, Kerri. 2013. “This is a Remix : Remixing music copyright to better protect mashup artist”.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13(2) : 661-694.
- Gorda, AAANSR. 2022. “Legal protection for copyright holders of commercialized remix song cover version”. *Legality : Jurnal Ilmiah Hukum* 30(1) : 1-11.
- Knobel, Michele & Lanshear, Colin. 2008. “Remix : The Art and Craft of Endless Hybridization”.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2(1) : 22-33.

3. 학위 논문

- 양지, 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중음악 가사 및 가요형식 분석에 관한 연구: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요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

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한, 2017. 「국내 리믹스 음악의 발전 가능성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orschke, Margie, 2011. Rethinking the Rhetoric of Remix,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h.D. Degree.

4. 기타

Gibson, William. 2005. "God's Toys : Confessions of a cut and paste artist". Wired-San Francisco 13(7), 2005.07.01. <https://www.wired.com/2005/07/gibson-3/>

A Study of Remix Music's Transformation Methods

Kang, Da hye · Yeo, Woon Seung

(EWhA Wonmas University Ph.D Candidate · EWhA Wonmas University Professor)

The act of remixing to create a new cultural product by reconstructing an existing one is being performed in almost all cultural content fields today. Even so, although the remix concept originated in the musical field, theoretical discussion concerning its reconstruction principles in popular music compared to other genres is lacking.

This paper analyzes the methods of transforming original songs in remixing. Furthermore, it presents a theoretical basis for its systematic understanding. Ninety-four previously released popular music remixes were selected and compared with the original songs in terms of musical elements, thereby identifying representative types of reconstruction as a new standard for remix music creation. This comparison is then further studied to explore whether applying analytical methods of literary works allow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usical remix process.

As a result, musical remix types were categorized as either 1) an “expansion” process that preserves the original accompaniment (i.e., background) and transforms the vocal composition, or 2) a “transposition” process that creates a new accompaniment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 vocals (i.e., characters). Based on this finding, musical remixing could be described as preserving either the vocals or the accompaniment of the original song while completely transforming the other element. Thus, it maintains the original piece's identity and aura but simultaneously reveals the difference.

These results identify types of remixing popular music based on principles borrowed from a non-musical genre. Furthermore, they analyze existing types and suggest systematic strategies for creating new ones.

Key words : remix music, remix culture, Lubomir Dolezel, transformation methods,
expansion, transposition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07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14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7일